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리더십연구원(원장 최진) 주최로 '호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의 토크쇼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민석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태 의원, 유성엽 의원.

박주선 “신당 따로 추진되면 배신 낙인...통합해야”

신당파 의원들 '호남!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토크쇼

박준영 “새정치 존재감 無”...김민석 “야권 방향 선택할 때”
비주류 의원들 “통합 전대 시급...신당, 최후의 수단 돼야”

신당 창당 추진세력과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이 야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뿜었다. 신당 창당 추진세력들은 특히, 신당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리더십연구원(원장 최진)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최진 토크쇼'를 열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쇼에는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 문재인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조정태·유성엽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령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대화 과정에서 통합 시기에 대한 이견이 확인됐지만, 인내를 갖고 차이를 극복해서 한길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국정 교과서 논란 과정을 복기하며 “이는 새누리당이 잘못해도 국민의 지지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존재는 이미 여당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했다.

김민석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노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야권이 어떻게 재창조해 만드는지 방향을 선택할 때”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신당 창당 당위성에 대해 방어 논리를 펴면서 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유성엽 의원은 “신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며 “분열이나 분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대표의 문·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지도체제 제한에 대해 그는 “문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분이고, 안전 대표도 지난해 7·30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나 분”이라며 “두 분은 백의중군을 하고 비대위를 발족해 신당 추진세력까지 포함한 통합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태 의원은 “지금 야당·야권의 모습은 여당·여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반사 이익을 누리며 어떻게 한다”며 “그러다 보니 광주를 중심으로 신당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찰 시위진압·노동개혁 막판 쟁점

예산 심사 종료 D-5...광주·전남 현안사업 증액 관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어 가운데 경찰의 시위진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5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예정위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소소위는 지난주 감액심사에서 감액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1조원 가까이 순(純)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서는 '쟁점 예산'에 대해선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됐다. 김성태·안민석 간사는 오는 26일까지 감액 협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전했다.

소소위와 양당 간사 합의에선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한 살수차 예산(1대당 3억원)은 '폭력집회'와 '과잉진압'의 주장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또 '새마을 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새정치연합이 '대통령 예산'으로 규정,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략적인 삭감은 안 된다며 맞서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이 재보류로 넘어갔으며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특조위 문건'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의견 대립도 여전하다. 이 밖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추가 협상 대상으로 올랐다.

감액 심사를 마치면 예정위는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결되지 못해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틀만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예산안은 자동 상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 라운지

동광주IC~광산IC 확장 공사 현장실사

임내현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복구 울)의원은 25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동부엔지니어링, 광주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총 연장 10.8km) 확장 공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사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 예산을 최초로 확보해 낸 임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지역주민들의 20년 염원이었던 용봉 IC 신규 진입로 2곳 등이 새로 생겨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비는 2762억원(국비 640억원, 도로공사 741억원, 광주시 1381억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주선 ‘조문 정치’

빙부상 조문 온 천정배·박준영·정동영과 정국 논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권 전반에 '조문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당 통합에도 '조문 정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당 세력들의 통합을 주장하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빙부상 상가에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은 물론 신당 참여 인사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문을 마친 뒤, 박주선 의원과 신당 통합 및 향후 정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 의원은 지난 24일 저녁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원과 신당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도 대거 박 의원의 빙부상 상가를 찾아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국회의원들의 조기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 등 신당 참여 여부가 주목받는 인사들과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 등의 조문 발걸음도 이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립서비스는朴대통령이 최고”

“늘 남 탓” 대통령 발언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립서비스만 한다” “위선” “직 구유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를 비난한 데 대해 “국기장레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 싶다”는 글을 올렸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장(國家葬) 기간 중 국회와 국민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나 삼라만상 말하면서도 방산비리 등 불리한 건 얘기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정말 힘없고 뻣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민생법”이라며 “그런 법이 아닌 대기업 위주의 법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대통령이) ‘경제’, ‘경제’하며 ‘국회가 눈을 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정치인 중 박 대통령만큼 립서비스를 잘하는 분, 따를 자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은 지금 생각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립서비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간복지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동철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과 원혜영·민병두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복지 3.0시대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사회 빈약한 기부 문화와 자원봉사 풍토를 개선하고, 기부문제를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끌어올려 민간복지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민간복지포럼 이사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철 의원은 “기부 GDP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30조에 달한다”며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민간복지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국민 동의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